
碩士學位論文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濟州道民의
意識 調查 研究

指導教授 金 升 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體育教育專攻

鄭 贊 植

1998年 8月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濟州道民의
意識 調査 研究

指導教授 金 升 坤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體育教育專攻

提出者 鄭 贊 植

鄭贊植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 연구

정 찬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승 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민의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하여 제주도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 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8개 부문의 5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제주도내 대학 재학 이상의 연령층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자료 처리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배경 요인별에 있어 유의차에 대하여는 t검증, 변량분석(ANOVA), χ^2 (Chi-squares)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변량 분석 후 유의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è-test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설문지 조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제주도민은 엘리트 스포츠가 학교 체육 활성화 및 생활 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 경쟁력 고양 등의 사회 관계에 있어서 기여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80년대 이후 긍정적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 책임자의 선임,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경기인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기단체, 지역 체육회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행정체계 및 정책과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본 논문은 198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셋째, 학생 운동 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대표 선수 및 팀에 대하여 경기인 외의 일반 도민의 경우 기대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넷째,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지역간 팀간의 교류 그리고 집단 합숙 훈련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수 선수에 대한 포상 제도는 개선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경기대회는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회 운영시 일반 참여의 무관심, 과잉경쟁, 관주도형 운영, 재정의 과다지출, 개최시기, 종목운영, 인력동원, 규모의 비대화 등은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 하여 주고 있다.

첫째, 엘리트 스포츠가 학교체육 및 생활 체육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가 필요하며, 선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엘리트 선수들의 전인적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 져야 한다.

둘째, 대표 선수 및 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를 갖을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우선 요구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회 참가 기회 의 확대, 참가종목의 다양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도내에서 개최 되는 각종 경기대회와 전국규모대회 유치 개최가 지역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도민 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의 시행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의 과학화, 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등이 요청 되고 있으며, 대중 매체 또는 매스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엘리트 스포츠 활동의 순기능적 요소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문제	3
4.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엘리트 스포츠의 본질	4
1) 스포츠와 경쟁	4
2) 스포츠 분야의 엘리트	5
2. 엘리트 스포츠의 기능	7
1) 순기능적 측면	9
2) 역기능적 측면	10
3) 엘리트 스포츠의 비판 및 가치 지향	11
3.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 및 현황	12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 및 일반	12
2)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 및 일반	15
III.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기간	17
3. 측정도구	17
4. 조사절차	18
5. 자료처리 및 통계 방법	19

IV. 결과 및 자료고찰 -----	20
1.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 -----	20
2.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7
3. 엘리트 스포츠의 행정 조직 -----	29
4. 학생 선수의 관리 -----	32
5. 대표 선수 및 팀 관리 -----	36
6. 각종 경기대회 -----	39
7.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 방안-----	47
 V. 결론 및 제언-----	 54
1. 결 론-----	54
2. 제 언-----	55
 참고문헌 -----	 56
ABSTRACT-----	58
부 록(설문지)-----	61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 -----	17
표-2.	설문 구성 내용 -----	18
표-3.	평점기준 -----	20
표1-1.	학교체육 활성화 -----	21
표1-2.	생활체육 활성화 -----	22
표1-3.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향상 -----	22
표1-4.	사회적 유대강화 -----	23
표1-5.	애국심 및 애항심 고양-----	24
표1-6.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25
표1-7.	국가 및 지역경쟁력 고양 -----	25
표1-8.	국가 및 지역 홍보 -----	25
표2-1.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 (70년대) -----	28
표2-2.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 (80년대) -----	28
표2-3.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 (90년대) -----	28
표3-1.	행정 조직 책임자 선정-----	29
표3-2.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	30
표3-3.	스포츠 단체의 행정체계 및 정책-----	31
표3-4.	자치 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32
표4-1.	운동선수의 학업 손실 방지를 위한 노력 -----	33
표4-2.	연간 학생선수의 대외 경기 참가 횟수-----	33
표4-3.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제도 -----	34
표4-4.	장학(경제적)혜택 정도-----	35
표5-1.	대표선수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	36
표5-2.	우수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및 선수 교류-----	37
표5-3.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집단 합숙 훈련 -----	37
표5-4.	우수 성적에 대한 포상제도-----	38
표6-1.	지역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	39
표6-2.	엘리트선수 육성에 대한 기여-----	40
표6-3.	스포츠 단체의 주최 ·주관 운영 -----	41
표6-4.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	41
표6-5.	자치단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41
표6-6.	언론사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42
표6-7.	지역간 대항 경기-----	42
표6-8.	직장 대항 경기-----	43

표6-9.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	43
표6-10. 학교대항 -----	44
표6-11. 전국대회 유치 개최가 스포츠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44
표6-12. 대회 참가 기회 확대-----	45
표6-13. 참가 선수단 규모 확대 -----	45
표6-14.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	46
표6-15. 참가종목의 다양화-----	46
표6-16. 각종 대회 운영시 우선 시정 고려 되어야 할 사항-----	47
표7-1.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전환 -----	48
표7-2. 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 -----	48
표7-3.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 -----	49
표7-4.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	49
표7-5. 스포츠의 과학화 -----	50
표7-6. 금전 보상 및 장학제도 -----	50
표7-7.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 -----	51
표7-8. 중앙행사의 지방 분산 -----	51
표7-9. 기관장, 경제인중심의 체육행정 책임자 선정-----	52
표7-10. 매스컴의 협조 -----	53

그 립 목 차

그림 1.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 체육관계에 미친 영향의 요인별 비교-----	26
그림 2.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의 요인별 비교-----	27
그림 3. 연대별 스포츠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비교-----	29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생활체육에 비하여 엘리트 스포츠의 발달이 빨랐던 것은 과거에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관식, 1993). 일제하에서는 민족적 저항으로, 해방 후에는 북한과의 외교 전쟁으로, 경제 발전의 시대에는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을 따라 잡는 민족의 기상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유로 해서 급진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급진적인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은 지역 스포츠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프로 스포츠의 예를 보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생계로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구단이라는 하나의 기업체 라기 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팀으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도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간과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스포츠의 승리에 의해서 획득되는 위광의 가치가 사회에 확대되어 권위의 가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회적 제력의 작용 요인으로 엘리트 스포츠가 촉진된다는 엘리트 스포츠 촉진의 외부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김성룡 ·장세창 ·송승건, 1993). 「권위의 가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분히 중앙 통제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원적 기능에 반하여 촉진되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트 스포츠 촉진의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는 중앙 집중적 논리가 우선 되고 그 하위 요인으로서 지역 스포츠 활동을 설명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엘리트 스포츠의 영역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저변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엘리트 스포츠는 국가 대표 선수와 같이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체육, 군사체육, 직장 체육 중의 일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한다면 학교 체육임과 동시에 엘리트 체육이고, 군이나 직장에서 운동부를 운영하여 실업단 대회 등에 출전한다면 그 것도 엘리트 체육이다(진성태, 1998).

엘리트 스포츠를 촉진하는 내부적 요인, 즉 신체적 체 능력의 발전을 곤란성의 도전으로 전개하는 스포츠의 성격과 이것을 강조하는 스포츠계의 체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엘리트 스포츠 영역의 다양성과 이를 촉진하는 내부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지역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활동의 양상과 이에 대한 주민 의식의 고찰은 엘리트 스포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86 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 이후 외면적으로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수준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일 예로 하키, 핸드볼 등의 종목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할 만큼 세계 정상 수준의 수준에 올라서 있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든 전국규모대회든 텅 빈 관중석에 참가 팀만의 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있다. 정상적 시각으로 본다면 폭 넓은 경기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배출이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여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이의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경쟁에서의 승리가 최고, 최선의 가치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정상적 성장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급진적 성장의 결과 경쟁에서의 승리는 금전적 보상 또는 개인적 위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운동 선수는 자유 및 자발성으로의 모든 접근로를 봉쇄 당한 사회적 힘의 수인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정적 현상들과 제반 엘리트 스포츠 역기능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의 의의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그 초보적 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에서의 활동 내용에 대한 고찰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체육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의식을 참고로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 스포츠 활동 전반이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 같이 제주도 지역의 스포츠 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를 추종 형태로 전개되어온 만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한국 개최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시각이 지금까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에 대한 고찰과 지역 스포츠 활동이 체육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 선수 및 팀의 관리, 각종 경기대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역엘리트 스포츠의 바람직한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3. 연구 문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 1)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지역주민의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 3) 엘리트 스포츠 행정 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4) 학교 엘리트 스포츠 운영 방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5) 각종 대회 운영에 대한 도민 의식과 개선 방향에 대한 사항은 무엇인가?
- 6)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 방향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4. 연구의 제한점

- 1) 제주도내 대학 재학생 및 이 이상에 해당하는 연령의 체육인 및 일반인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 2) 전화, 면접 등에 의한 현상 파악 및 사실 발견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설문지 조사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엘리트 스포츠의 본질

1) 스포츠와 경쟁

엘리트 스포츠의 본질은 도전과 경쟁에 있다. L. 카이요아는 놀이(play)를 유쾌함과 즐거움, 혹은 기쁨을 추구하는 활동이라 하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기쁨을 추구한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놀이(play)를 유도하는 네 가지 심리적 태도(agon, alea, mimicry, ilinx)를 지적하고 있는데 스포츠는 이 가운데 아곤(Agon)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Agon의 영역에 속하는 스포츠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차단된 특정한, 그리고 한정된 시간과 공간적 범위에서 행해지며,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룰(Rule)에 근거하여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독자적인 의지와 실력으로 하는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의 세계는 특히 인간들의 수행 능력을 표출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경쟁의 원칙이 보다 첨예하게 드러난다(오상남, 1993). 여기에서 경쟁의 원칙은 승리의 욕구와 새 기록에 대한 열망을 근거에 두고 있다(정용근, 1992).

이는 1964년 ICSPE(International Council of Physical Education)가 채택한 스포츠 선언(Declaration on Sport)의 서두에 정의된 스포츠의 개념-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의 투쟁 또는 자연의 힘과의 대결-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고대 올림픽 경기는 물론 다른 스포츠 경기들도 자연스럽게 최고 수행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현대에도 이 원칙은 국민학교 운동회에서 부터 올림픽 경기 및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상남, 1993).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당시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자유경쟁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적 문화로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사상을 확립한 영국의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 당시의 사회 다윈주의와 연결되어 스포츠에 있어서의 경쟁의 사상을 확립하게 하였고 이것이 스포츠 문화로써 정착이 되어 나갔다(김동규, 1995).

결국 스포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긴다고 하는 관념이고 이

간다고 하는 것은 스포츠에 있어 자신이 우월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스포츠 관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신성휴, 1993).

이러한 스포츠 문화에 내재된 제반가치는 전체 사회와 일치되어 서로 중복이 되고 강화 시켜 주는 관계에 있으며 특히 스포츠와 경제 제도 양자는 모두 실질주의와 사회적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경제, 정치에 있어서 게임의 규칙은 공정하고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의욕과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즉 누구나 규칙에 복종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와 전체 사회는 개인들이 남보다 우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능을 겨루는 다른 문화 요소와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출현하고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J.J. Coakley, 1987).

그런데 스포츠에서 이러한 경쟁과 승리는 그 룰과 공정성, 개방성에 의해서 가치를 획득하기도 하지만 과열경쟁에 인한 승리지상주의, 환금만능주의, 무자비한 기록경쟁으로 인한 신체의 비균형적 발달, 스카우트의 과열, 약물복용, 대중 스포츠로부터의 소외 등이 엘리트 스포츠의 폐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스포츠에서 가장 순수하고 멋진 요소는 어려운 규칙을 지켜가면서도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향해가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며 자기 존재의 주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존재의 주체성 확인은 상대를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만큼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인간적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 되어야 하고 실천 되어야 할 것이다.

2) 스포츠 분야의 엘리트

스포츠분야에서 엘리트의 지위는 엄격한 의미에서 경쟁을 통하여 획득 된다.

규칙을 존중 하고 정정 당당한 경쟁 과정을 거쳐 획득한 지위로 그만큼의 순고한 가치가 주어 진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되고 명예로운 지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포츠라는 하위 문화 내에서 창출된 엘리트의 지위의 가치는 사회 속으로 흘러 들게 되고, 사회적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의해 더욱 강화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사회 통치, 통합의 이념을 정당의 수단으로 또는 이는 현대 산업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의 경쟁의 이념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크고 작은 특정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일상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경쟁 체제하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월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싶은 욕망 즉 엘리트의 지위를 획득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끊임 없는 노력을 행한다.(오상남,1993).

이와 같은 욕망의 전개는 스포츠에서 적나라하게 전개되고 보여진다. 더구나 이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부여 받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 확연하게 엘리트의 탄생을 지켜 보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스포츠 분야에서 엘리트는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의 부류는 엘리트 스포티즘에 입각한 스포츠의 목적이 경쟁에서의 승리인 것 만큼 스포츠와 관련된 선수단 감독,경제인등과 같이 스포츠 정책결정과 조직의 결속,경제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집단이고 ,둘째의 부류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스포츠 기능을 소유한 스포츠맨 집단이다(김선희,1992).

첫째 부류의 엘리트들은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혹은 전문 기술의 획득에 의해서 그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둘째 부류의 엘리트들은 각급 학교 대표 선수들 또는 각 실업 팀 선수들,국가 대표 선수들처럼 각 협회나 연맹에 등록된 선수들이 포함 된다 (오상남,1993)

스포츠 분야의 신분과 관련해 설문 조사 방법 등에서 체육인을 운동경기 관련 체육인,비경기 관련 체육인으로 구분하고,이들 체육인들 중의 신분을 다시 코치,감독,체육단체 임원을 포함하는 지도자와 운동선수로 구분하고 있다(김동규,1995). 이의 경우에 의하면 운동경기 관련 체육인을 스포츠 분야의 엘리트로 분류 할 수 있겠으며,코치,감독 체육단체의 임원 등 지도자는 관리측면에서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운동 선수들은 경기자로써의 운동 수행 과정을 통하여 엘리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연계되어 스포츠 분야에서 엘리트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기에 있어 약물 매수 등의 비합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지위를 획득하는 경향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규범과 통념에 따른 합리성 가치 기준과 명분,필요성에 의해 상호 연계가 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획득한다.

스포츠 역시 생활의 범주에서 이루어 지는 하나의 사회적 문화현상으로 파악 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 현상의 한 범주에서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조직되고 그

조직을 통하여 그 영역을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엘리트 지위의 획득을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 또한 발휘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개별화 ,다양성의 추구하고 함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소수의 특정 전문인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의 특정적인 역할에서 엘리트 지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경쟁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스포츠분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엘리트의 지위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과 조직,스포츠에서의 정치적 기능 ,개인적인 자질에 의해서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엘리트 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위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이 되고 이로 인해 부나 스포츠 활동에서의 영향력,스포츠 교육의 기회,인물 발탁의 기회 등은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더욱 결속된 다음 세대로 까지 계속시켜 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스포츠가 추구하는 정당한 가치의 추구에 의해서 이를 해소하여 나가는 기능 또한 발휘하고 있다.

2. 엘리트 스포츠의 기능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보다 큰 사회의 축소판 내지는 거울로 간주된다.이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사회적 상징,신념,규범,가치 태도 및 인지적 경험 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전달하는 하나의 사회제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승곤 ·이세형 ·양명환, 1997).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고도로 조직화 되고 대표적인 스포츠 부류로 지칭되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는 사회 집단의 집합적 표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제도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광현(1988)은 스포츠의 순기능적 관점에서 “① 스포츠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다 ② 스포츠는 기존의 가치 규범을 인정하게 한다 ③ 스포츠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 ④ 스포츠는 정치적 순기능을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오상현(1993)은 엘리트 스포츠의 기능을 첫째 사회 통합의 기능,둘째 사회 통제의 기능,셋째 이데올로기 및 정치 체제의 선전 기능,

넷째가 외교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놓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추구하는 고유의 가치 추구에 따른 기능으로도 이해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포츠 현상 자체에서 경험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기능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엘리트 스포츠는 전문적인 운동 선수 및 팀간에 거행되는 경기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동규, 1995).

그런데 좋은 경기에는 필수적인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첫째가 규칙하에서 동등하게 치러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것이 없이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술의 특징과 능력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기술과 능력 등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능력은 경기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함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배제 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페어 플레이 정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둘째는 경기는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 선수는 선택한 종목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까닭으로 인해 때로는 경쟁자가 동반자이면서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문익수, 1993). 셋째는 경쟁의 속성상 경기 결과를 대함에 있어 그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 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실제 운동 경기에 있어 결과는 또다시 분석이 되고 새로운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기술적인 반칙 또는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개개인의 가치관의 시험대로서 경기를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경기의 필수적 요건들에 대한 존중은 일상의 사회적 규범, 가치의 존중과 동일시 되어 그 자체로써 사회적 또는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사회 통합의 기능이라든가, 통제의 기능, 사회적 가치 전달의 교육적 기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전제되는 요건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 올림픽 경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참가 선수들이 자신들의 소속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 우승자의 시상식 소속 국가의 국가를 방송하고 소속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 각 경기에서 우승한 전적을 국가별로 집계하고 있는 것,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을 대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개막식 때 선수들이 소속 국가의 국기를 앞세우고 국가

의 특색을 상징하기 위한 복장을 하고 입장 하고 있다는 것 등이 민족주의적 정서를 담아 내고 있다(권운택,1993). 따라서 이의 경기에서 승리는 참가국의 우월성 등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 우월성 또는 정치적 우월성의 선전 기능을 발휘 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사회적 관습,언어,인종에 관계 없이 또는 정치적 이해와 관계 없이 룰(Rule)과 경기 기술의 습득에 상호 교류가 손쉽게 이루어 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속에서 스포츠는 외교적 기능을 크게 발휘 하게 되는데 각 국가의 권력,스포츠의 역량 수준에 따라 친화 협력관계,적대 투쟁 관계,교환 매매 관계,지배 복종 관계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범식, 1988).

이와 같은 엘리트 스포츠의 사회 교육적 기능,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기능, 그리고 외교적 기능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지역 단체 그룹에 있어서도 같은 유형으로 적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순기능적 작용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 가치 자체를 재고 하도록 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 순기능적 측면

스포츠 본래의 가치 추구에 의해 그 순기능적 요인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 Goffman(1967)은 현대인들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5가지 개인적 자질을 배짱(courage),용기(gaminess), 성실(integrity),과감성(gallantry),침착성(composure)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질은 엘리트 스포츠 영역에서 중요한 자질로 인정 받고 있으며, 스포츠의 도덕적인 질서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고 특히 스포츠 영웅의 바람직한 속성을 규정하게 된다(J.W. Loy,et al,1978). 따라서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영웅은 사회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주요 가치지향과 상징에 결합하려 한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고 잡지나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읽고 또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스포츠에 대한 사회화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린이는 스포츠가 중요하고 가치 있음을 배우게 된다(G. Smith, 1973). 이와 같이 사회화 과정의 소산으로 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 영웅을 좋아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참가는 참가자 주

변에 정서적인 상부 구조를 형성한다. 즉 스포츠 연맹, 슈퍼스타연맹, 팬 클럽 등의 상부구조는 비참가자들에게 우애감과 연대감을 가져다 주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한다(D. Brockmann, 1969). 그리고 상부구조는 참가단체에 우애감 등의 정서적 감정을 강화하고 확장 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들 보조적 기관들이 종종 사회 활동, 무용, 파티 등 스포츠와 관련 없는 활동을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연대감을 증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연대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사회적 거리감인데 엘리트 스포츠는 우정을 발전시키고 연대감을 확장시킴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M. Bouet, 1966).

또한 학교 체제 내에서의 엘리트 스포츠의 기능을 카타르시스의 기능과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보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경기와 훌륭한 삶의 학습을 배우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역기능적 측면

현대 스포츠의 형상은 고대 및 중세 스포츠의 배경과 참여하게 대조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스포츠는 종종 종교적 제식이나 참여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었다. 형식적 조직이나 역할 전문화의 정도는 낮았으며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험의 의미에 대한 질적 평가를 지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스포츠는 세속적, 실력주의적으로 되었고 고도의 합리성과 관료적 조직에 예속되었으며, 스포츠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더 기록 수립적이고 양적인 평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가 전문화, 대량화 됨으로써 스포츠의 낭만이 추상적인 숫자나 기록으로 타락되었고 품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페어플레이를 할 여지가 없어졌으며 신체적인 운동 감각에 능동적으로 반응 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선수들은 경기장과 강의실 활동이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며, 잦은 대회 참가와 훈련으로 인하여 일반 학생과 격리되거나 교육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원 스포츠의 과열 경쟁은 물질만능의 프로 정신, 불법적인 스카우트, 착취, 음성보조금, 지불, 자격 기준의 조작 등 역기능적 현상들을 부추겨 내고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엘리트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 스포츠는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착취적이고 비인간적인 별리적 가치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스포츠의 엘리트적인 체제 때문에 발생한 소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엘리트 스포츠가 발전, 전개되면서 운동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역기능적 현상들이고 엘리트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잠재적인 모순점들이다. 즉, 스포츠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정치적 구성체로서의 국가와 문화적 실천 유형으로서의 스포츠 양자가 모두 자본주의를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규정하는 계급적 이해 관계와 물질적 힘의 직접적인 반영이라고 간주한다(김동규, 1995).

3) 엘리트 스포츠의 비판 및 가치 지향

인간의 삶 속에서의 스포츠는 이전 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일에 지친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거나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또는 신체적인 도전의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에 참여한다(문익수, 1993).

엘리트 스포츠도 그 하나의 범주로 실천되어야 한다.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착취적이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실천 될 때 그 것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상실 할 수 밖에 없다. 경기의 수준이 점점 높아 갈수록 이겨야 한다는 기대의 중압감은 높아 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선수, 심판, 지도자,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선수의 승리를 위해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위해가 올 수 있는 행동을 받아 들이고 심지어 그러한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의 역기능이 작용 하고 이다.

사실 조직화된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비평가들로 부터 스포츠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 스포츠 본질적 특성으로 부터 발생하는 갈등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다(김동규, 1995).

스포츠는 자발적인 놀이 및 게임을 통해 표출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낭만적 추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 및 현황

1)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 및 일반 현황

국내에 있어서만 해도 1982년 신설된 체육부로 시작하여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로 개편 되어 오고 있는 정부 조직에서부터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민간사단법인체의 대한체육회,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 종목별 연맹체, 지역에 있어서의 시·도체육회, 대학연맹체, 프로연맹, 프로 스포츠 구단등과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결성된 친목단체에 이르기 까지 각각의 스포츠 조직을 통하여 스포츠 활동이 전개 되고 있다.

이들 스포츠 조직과 단체는 엘리트 스포츠 활동을 근간으로 탄생이 되었다. 1982년에 신설된 정부 조직인 체육부만하더라도 88올림픽과 86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그 이전 문화부의 국 단위 또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에서 그러한 하부 조직을 거느린 정부 기관으로 탄생이 되어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을 전개하였다.

일제하에서 창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랜 된 민간 체육 단체인 대한체육회 역시 세계·국제연맹과의 관계 유지와 함께 국내 종목별 스포츠단체(연맹체)의 조직등을 통하여 대표 선수 선발 및 훈련, 국제대회 참가 등을 그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이는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이 그 대표 제도를 확립한 경기대회의 성적은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우월성의 척도로 간주되어 올림픽 대회를 정점으로 한 경기대회의 위광은 국가체제의 위광으로 바뀌며 국력의 지표로 사용되었다(김성룡·장세창·송승건, 1993). 따라서 이들 조직은 더욱더 강화되어 나가면서 엘리트 스포츠의 이념 또한 확고히 하여 왔다.

세계는 국가 발전의 수준과 체제, 이념에 관계없이 엘리트 스포츠를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하고 있다. 체제, 이념이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 1950년대에 착수한 스포츠 특수학교 체제를 1970년대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모방하여 스포츠에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훈련 시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를 강화하려는 이와 같은 각국의 노력은 우수선수로 분류되는 소수의 스포츠 엘리트들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 뿐만 아니라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발전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제5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국제 경기력의 수준은 올림픽 대회와 아시안 게임에서의 메달 획득 율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향상 되었다. 이는 88서울 올림픽의 유치 성공에 따른 경기력 향상에 의한 국위 선양을 위하여 체육부와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경기력 향상 육성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성룡·장세창·송승건,1993).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1982년 3월 신설된 체육부는 '88서울 올림픽과 '86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그를 통한 일등국민으로서의 이미지를 발휘하고 자신감을 배양하며,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스포츠를 과학화하고 국제 경기 경험을 축적함은 물론 국민 스포츠를 생활화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한다는 의지가 강화되어 정부차원에서 엘리트 선수 경기력 향상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 과학연구소의 확대,체육단체의 정비 강화,체육인의 복지향상,신인선수의 발굴,그리고 대표팀의 전임 코치제 등 많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였다.그 중에서 특히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위하여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국교 단절국가와의 스포츠 교류에 의한 관계개선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범국민적인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잠재적인 체육역량을 최대한 발휘,집결하여 선진조국 창조의 원동력으로 승화 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체육,스포츠 생활화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김성룡·장세창·송승건,1993).

그것은 스포츠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엘리트 스포츠 양성 정책의 표현이며 이러한 정책은 우수선수를 학교,사회체육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하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부터 국가 관리하에서 양성하는 체제의 변화였다.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은 한국의 사회적 여건과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박용연,1989).다시 말하면 신체 활동 보다는 지적 생활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는 청소년들을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케 하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었고,이러한 제한 요인은 스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은 불투명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이러한 인과적 상황은 우수선수를 국가 관리 체제 하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의지로 표현 되었고 국가로 하여금 운동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과 가치관을 보상적으로 대치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체육특기자 제도,우수신인 양성체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태동 되었다.

그러나 88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는 국민의 관심 저하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엘리트 스포츠의 근간인 후보 선수 층의 취약성으로 경기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 선수도 프로 경기 활성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한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인 전문 스포츠맨을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의 취약으로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체육부, 1992). 또한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 역할을 한 체육계 학교, 즉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이 1970년대에 맞추어 제정한 등록금, 기숙사, 숙식제공의 특혜는 국민경제 생활이 급격히 풍요해지면서 엘리트 스포츠의 꿈나무들을 유치할 유인책이 될 수 없게 되었다(이광섭, 1993).

오늘날 세계 선진국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미국만 보더라도 구 소련과 메달 경쟁을 벌일 때 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단체에만 맡겨 왔던 국가대표 선수의 운영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올림픽 대회의 메달 리스트는 물론 8위 이내의 입상자, 그리고 주요 국제대회의 입상자에게 포상과 함께 훈련 지원비를 3배 가까이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의 여러 선진국은 물론 한창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스포츠 경기의 유치에서도 발견되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 경기 유치에도 불꽃 튀기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 할 때 우리 나라의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 너무 빨리 국제 경기력 향상을 경험한 것이 엘리트 스포츠에 대하여 안이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민관식, 1993).

결국 오늘날 한국에서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엘리트 스포츠의 축소가 생활체육을 진흥 시키는 것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하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김동규, 1995).

엘리트 스포츠가 발달 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튼튼하게 발달해야 하며,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발달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발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 및 현황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는 지리적 여건과 열세의 인적자원으로 스포츠의 불모지로 표현되어 왔다(양조훈, 1982). 이처럼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도의 엘리트 스포츠는 8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한다. 1984년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제주시 오라동에 22만4천평 규모의 종합경기장이 들어서고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명명되었다.

70년대 가지만 하더라도 공설 운동장이 현재 제주 시청 앞에서 오라동으로 이전해 시설을 정비 하기는 했지만 경기를 치러 내는 데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1978년 확장 공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들어서 한라체육관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되고 아울러 주경기장 개 보수, 야구장,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 애항운동장 신설 공사가 이루어져 종합 경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 시작했고, 선수 육성 체계도 정비되어 지도자 확보에 따른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수 선수들에 대한 특별 지원, 순회 코치 제도의 도입과 정착, 대표 선수 합숙소 운영 및 단련장 시설 정비 등 상당한 진전을 보여 주었다. 이를 계기로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대외 경쟁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스포츠 행정의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1982년도에 제주체육진흥 7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됐다. 1984년 전국소년체전 개최 결정으로 모든 행정이 체전 준비 체계로 돌입하면서 이의 계획의 실질적 추진이 진행이 되어 전국소년체전 유치 개최와 함께 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80년대 초반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통하여 조성된 엘리트 스포츠 육성 체계는 80년대 말까지 명맥이 유지 되었지만 9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서 제주 스포츠 발전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계기로 다져진 지역 엘리트 스포츠 육성 체계의 한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유치 등에 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 육성 체계가 정비되면서 오히려 제주도의 경우 다시 인적 자원의 열세 등으로 다른 지역에 밀리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경기 인구 및 지역 기반이 없이 출발한 몇몇 경기단체 또한 해체 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와 함께 도내 스포츠 활동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 했다.

이러던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1992년도에 제79회 전국체전 제주

도 유치 개최 확정이었다. 이의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선수 육성 체계의 새로운 정비와 실업 팀의 창단 등이 이어지면서 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80년대 말 전국체육대회에서 10~20개 정도의 메달 획득 수준을 보이던 것이 이러한 적극적인 육성책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여 97년도에는 이의 2~3배에 이르는 60여개의 메달 획득 성적을 보이 등 대회 경쟁력 확보에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아이러니컬 하계도 서울 올림픽 이후 하향세로 돌아선 국내 엘리트 스포츠가 체전 유치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엘리트 스포츠 육성책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는 제주 지역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선 처방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이후 도내 엘리트 스포츠가 다른 지역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극소화 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체육 전문인 및 일반인 상대로 1,000매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621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82부를 제외한 539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내용	성 별		지 역 별		연 령 별				체 육 인		일반인	총 계
	남	여	시 지역	군 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인원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2. 연구 기간

- 1) 연구 계획 및 문제 설정 : 1997. 11.1 ~ 11.30
- 2)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 1997. 12. 1 ~ 12. 31
- 3) 질문지 작성 : 1998. 1.1 ~ 1.31
- 4) 질문지 배부 및 수집: 1998. 2. 1 ~ 2. 28
- 5)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 : 1998. 3.1 ~ 3.31
- 6) 논문 작성 : 1998. 4.1 ~ 6. 5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김동규(1997)와 오상남(1993)의 설문 문항을 기초로 발췌하고 종합 수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증 후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이 총 56문항으로 하여 5점 등간 척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2 설문 구성 내용

구 성 지 표	문 항 내 용	문 항 수
배 경 질 문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신분별(경기인, 비경기인, 일반인)	5
체 육 관 계 및 사 회 관 계	학교체육 및 생활 체육활성화, 전문체육인 양 성, 사회적 유대강화,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 건 전사회분위기조성,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및 지역 홍보	11
인 식 변 화	체육일반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연내 구분별 기 여도에 인식 변화	3
행 정 조 직	행정조직 책임자, 스포츠 단체의 기능과 역할, 육성체계 인식, 행정적 재정적 지원	4
학 생 선 수 관 리	학업손실, 대회 참가 횟수, 특기생 진학제도, 장 학혜택	4
대 표 선 수 및 팀 관 리	관심과 기대감, 선수 스카우트, 합숙훈련, 포상제도	4
각 종 경 기 대 회	도내 경기대회, 전국대회	15
종 합 평 가 및 개 선 방 향	인식전환,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 생활체육과 효율적 연계, 스포츠 과학화, 금정보상 및 장학 제도, 대회의 지방 분산, 행정 책임자 , 매스컴의 협조	10
문 항 총 수		56

4. 조사 절차

연구자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전 이해가 이루어진 전문인의 협조에 의하여 응답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 하여 현장에서 회수 하였다.

5. 자료처리 및 통계 방법

설문지의 자료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한 응답 부수를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신분별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다.

등간척도법에 있어 평점은 1~5점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 평점기준

평 점	평 가
4.51 이상	강한 긍정(매우 필요함)
3.51 ~ 4.50	긍정(필요함)
3.01 ~ 3.50	보통
2.01 ~ 3.00	부정(필요 없음)
2.00 이하	강한 부정(전혀 필요 없음)

유의차 검증에서는 t검증, 변량분석(ANOVA), χ^2 (Chi-squares)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변량 분석 후 유의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é-test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

1) 체육관계

(1) 학교체육의 활성화

표 1-1은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에 있어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2.73으로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에서는 성별,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에서는 30대에서 3.02로 보통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에서 부정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Scheffè의 사후 검증에서 "10대와 30대"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교체육활성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82	2.61	2.75	2.65	2.44	2.74	3.02	2.66	2.99	2.64	2.70	2.73
SD	1.10	1.06	1.10	1.05	1.01	1.02	1.31	1.05	1.03	1.06	1.11	1.08
t or f	4.63		0.86		4.54				2.63			
P	0.031		0.353		0.003				0.072			

(2) 생활체육 활성화

표 1-2는 엘리트 스포츠가 생활 체육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에서 2.74점으로 "부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성별, 지역별, 신분별에서는 유의차 ($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별의 경우 30대의 경우 어느 정도 긍정에 가까운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Scheffè의 사후 검증에서도 "30대와 20대, 30대와 10대, 30대와 40대 이상"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도민의 경우 엘리트 스포츠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이다.

표 1-2. 생활 체육 활성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73	2.76	2.76	2.70	2.58	2.74	3.15	2.45	2.99	2.76	2.68	2.74
SD	1.04	1.00	1.01	1.05	1.13	0.89	1.14	1.05	0.89	1.06	1.03	1.03
t or f	0.09		0.36		4.54				2.83			
P	0.759		0.547		0.003				0.060			

(3) 전문체육인 양상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

표1-3은 엘리트 스포츠가 전문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에의 기여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전체 평균이 3.03으로 "보통"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유의차 검증 결과 지역별,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별에서 있어 시 지역의 경우 3.11점으로 "보통"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군 지역에서는 2.72점으로 "부정"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에 있어서는 20,30대에서 각 3.14점과 3.19점으로 "보통"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20,30대에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에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전문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향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01	3.06	3.11	2.79	2.67	3.14	3.19	2.87	3.19	2.86	3.07	3.03
SD	1.22	1.19	1.20	1.21	1.18	1.12	1.25	1.39	1.11	1.11	1.26	1.20
t or f	0.03		7.13		4.39				2.15			
P	0.585		0.007		0.004				0.117			

2) 사회관계

(1) 사회적 유대강화

표 1-4는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적 유대강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내용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2.81로 "부정적 평가"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에서는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나고 있는데 30대에서 3.13점의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하고 있다.

품등평점에 있어서는 "성별, 지역별, 신분별"에 있어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 도민들이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적 유대 강화면에서 별로 기여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사회적 유대강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83	2.78	2.82	2.76	2.62	2.81	3.13	2.64	2.93	2.75	2.80	2.81
SD	1.11	1.01	1.04	1.15	1.07	1.03	1.15	1.00	1.00	1.09	1.07	1.07
t or f	0.21		0.42		4.50				0.70			
P	0.645		0.517		0.003				0.497			

(2)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

표1-5는 엘리트 스포츠가 제주도민의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12로 "보통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 남자가, 연령별에 있어 30대 이상에서, 신분에 있어 체육인중의 경기인과 일반인이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에서는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나타나고 있다.

Scheffè 검정에서도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의 평균치 차이는 "30대와 20대"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은 엘리트 스포츠가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에 다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상헌(1993)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체육교사의 의식 및 태도 조사에서 애국심 고양에 있어 제주 지역의 경우 4.11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3.96점에는 다소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5.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0	3.02	3.13	3.08	3.07	3.02	3.40	3.19	3.23	2.96	3.16	3.12
SD	1.10	1.10	1.11	1.09	1.08	1.08	1.19	1.06	1.13	0.98	1.14	1.10
t or f	3.56		0.21		2.93				2.08			
P	0.059		0.650		0.033				0.126			

(3)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표1- 6은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관계에 있어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조사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 점에서 2.92로 "적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에서는 "연령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30대에서 3.22 점으로 "다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10대와 20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Scheffè의 검정에 의하면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한 평균치 차이는 경기인 중 "경기인과 비경기인" 간에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관계에 있어 건전 사회 분위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제주도민은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체육인중의 경기인의 경우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비경기인 경우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93	2.86	2.91	2.87	2.67	2.85	3.22	2.94	3.16	2.69	2.92	2.90
SD	1.04	1.02	1.02	1.06	0.94	1.02	1.12	0.99	0.84	1.10	1.03	1.02
t or f	0.58		0.10		4.63				5.21			
P	0.447		0.756		0.003				0.005			

(4)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고양

표 1-7은 엘리트 스포츠가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고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3.04로 "보통"의 평가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에서 "보통"의 평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 결과 지역 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 보다는 다소 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고양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10	2.97	3.10	2.87	2.90	3.05	3.24	2.94	3.09	3.01	3.04	3.04
SD	1.12	1.10	1.10	1.12	1.02	1.08	1.25	1.14	1.07	1.14	1.11	1.11
t or f	1.57		4.17		1.70				0.12			
P	0.210		0.041		0.166				0.887			

(4) 국가 및 지역 홍보

표1-8은 엘리트 스포츠가 국가 및 지역 홍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내용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3.22점으로 "보통"의 경향을 나타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에서 "보통"의 평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정 결과 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국가 및 지역 홍보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5	3.17	3.25	3.11	3.06	3.23	3.27	3.29	3.35	3.12	3.22	3.22
SD	1.25	1.25	1.27	1.19	1.37	1.23	1.22	1.24	1.12	1.30	1.26	1.25
t or f	0.54		1.24		0.62				0.81			
P	0.464		0.265		0.599				0.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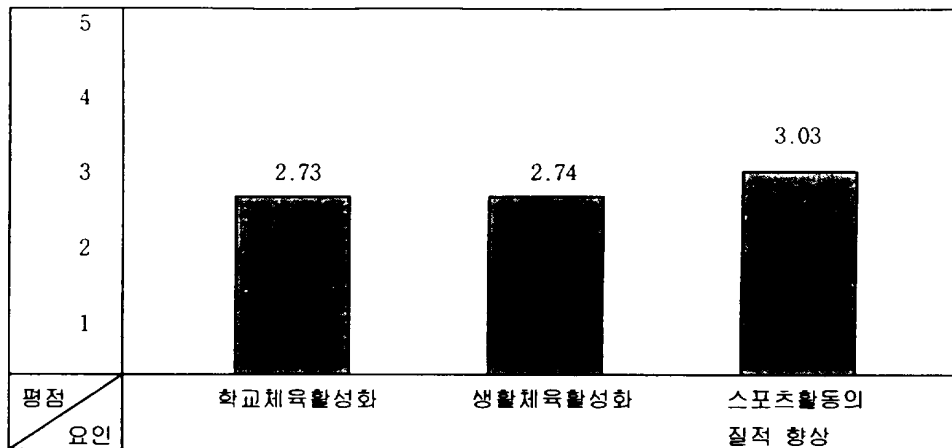


그림 1. 엘리트 스포츠육성이 체육관계에 미친 영향의 요인별 비교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은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에 있어 학교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에 있어 여성에게서, 연령별에서는 10대와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엘리트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경기인과 일반인에게서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엘리트 스포츠가 사회관계에 있어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과 국가 및 지역 홍보에 대해서 보통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강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고양에 대하여는 기여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 하고 있다.

요인별에 있어서는 30대 연령층에서 그리고 경기인 들이 애국심 및 애향심 고양,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고양, 국가 및 지역 홍보 등에 다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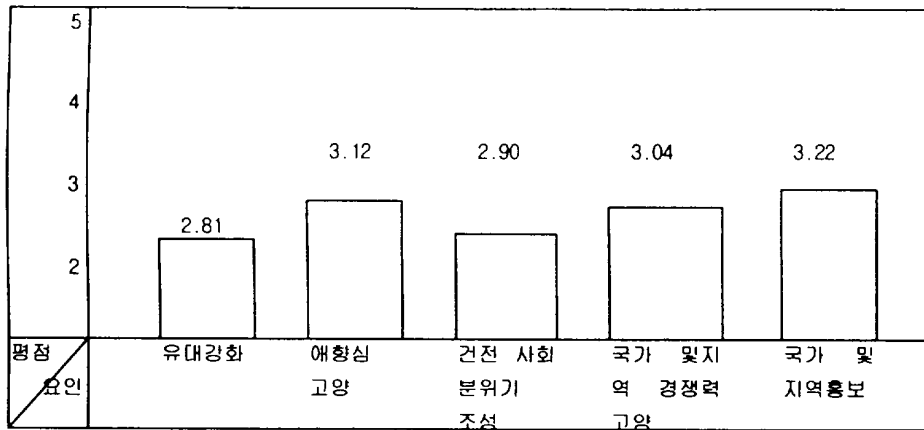


그림 2.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 사회관계에 미친 영향의 요인별 비교

2.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

표 2 - 1.2.3, 그림 3 은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 일반 및 사회 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관계를 연대별로 조사한 내용이다.

연대별로 보면 보면 70년대가 평점 범위 1~5 점에서 2.37로서 부정적인 반면 80년대에 들어서는 3.08로 보통 정도의 평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80년대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유치 개최로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가운데 90년대에 들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인 것으로 이해된다.

요인별 유의차 검증 및 Scheffè 사후 검증 결과에 있어서도 이에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70년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37	2.37	2.40	2.29	2.34	2.36	2.43	2.38	2.29	2.34	2.40	2.37
SD	1.11	1.01	1.08	1.02	1.02	1.04	1.20	1.04	1.14	1.06	1.06	1.07
t or f	0.01		1.02		0.14				0.34			
P	0.919		0.312		0.935				0.711			

표 2-2.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80년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10	3.06	3.09	3.06	3.01	3.11	3.08	3.09	3.16	3.08	3.07	3.08
SD	0.95	0.97	0.93	1.04	1.04	0.92	0.99	0.96	0.92	1.09	0.91	0.97
t or f	0.21		0.13		0.25				0.27			
P	0.647		0.715		0.864				0.762			

표 2-3.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 인식 변화(90년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43	3.54	3.51	3.39	3.45	3.51	3.53	3.35	3.57	3.46	3.47	3.48
SD	0.93	0.83	0.89	0.89	0.93	0.83	1.00	0.93	0.74	0.97	0.89	0.89
t or f	2.05		1.84		0.80				0.47			
P	0.152		0.175		0.492				0.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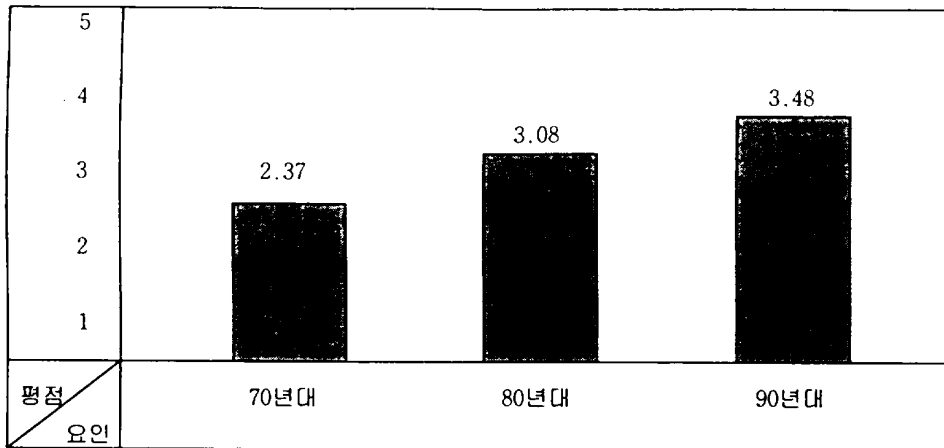


그림 3. 연대별 엘리트 스포츠 영향력에 대한 인식 변화

3. 엘리트 스포츠의 행정 조직

1) 행정 책임자

표 3-1은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스포츠 행정 책임자에 기관장(시장, 도지사) 또는 경제인 선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2.50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 있어 유의한 차이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cheffè의 검정에 의하면, 행정 책임자 선임에 대한 평균치 차이는 체육인중의 “경기인과 일반인” 간에 발견되고 있다. 즉 경기인에 비해 일반인이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표 3-1. 행정 조직 책임자 선정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51	2.48	2.52	2.43	2.53	2.42	2.59	2.60	2.77	2.59	2.39	2.50
SD	0.88	0.76	0.86	0.74	0.71	0.80	1.01	0.83	0.99	0.81	0.79	0.83
t or f	0.13		1.12		1.52				7.68			
P	0.7223		0.2896		0.2095				0.0005			

2)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

표 3-2는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2.63으로 "저조한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체육인과 일반인, 그리고 체육인 중에서도 경기인과 비 경기인간에 유의한($P < .01$)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인 중 경기인은 2.83점 비경기인은 2.76점, 일반인은 2.53점으로 체육인보다는 일반인이 체육인 중에는 경기인 보다 비경기인이 다소 엘리트 체육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62	2.65	2.61	2.70	2.51	2.60	2.76	2.73	2.83	2.76	2.53	2.63
SD	0.85	0.87	0.85	0.85	0.83	0.83	0.95	0.88	0.92	0.89	0.82	0.87
t or f	0.23		1.05		1.82				5.71			
P	0.6308		0.3069		0.1427				0.0035			

그리고 Scheffè의 사후 검증에서도 "일반인과 경기인, 비경기인"간에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엘리트 스포츠 단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기인들이 일반인이나 비경기인들보다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3) 엘리트 스포츠 단체의 행정 체계 및 정책

표 3-3는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행정체계 및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28점

으로 "보통"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인 중 경기인이 3.23점, 비경기인이 3.17점, 일반인이 3.28점으로 경기인과 일반인은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 스포츠 단체의 행정체계 및 정책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5	3.24	3.25	3.23	3.29	3.15	3.33	3.40	3.23	3.17	3.28	3.25
SD	0.91	0.87	0.84	0.84	0.86	0.89	0.89	0.94	1.01	0.87	0.88	0.89
t or f	0.01		0.04		2.17				0.66			
P	0.9140		0.8409		0.0910				0.5182			

4)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표 3-4는 지역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자치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31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결과 연령별,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의 검정에 의해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스포츠의 행정 조직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관장과 경제인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행정 책임자 선임 제도와,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단체 및 체육회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행정체계·정책, 지방자치 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는 그저 그런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34	3.26	3.31	3.30	3.30	3.20	3.53	3.44	3.36	3.18	3.35	3.31
SD	1.11	0.99	1.04	1.04	1.13	1.06	1.03	0.99	1.12	1.12	1.02	1.06
t or f	0.72		0.02		2.71				1.32			
P	0.3967		0.8828		0.0442				0.2685			

4. 학생 선수의 관리

1) 학업 손실의 방지를 위한 노력

표 4-1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운동 선수들의 학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 점에서 2.23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평가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 결과 각 성별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신분별에서는 체육인보다 일반인들이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Scheffè의 검정에 의하면 학업 손실 방지에 대한 평균치 차이는 "경기인과 일반인", "일반인과 비경기인"간에 발견되고 있다. 즉 경기인과 비경기인 간에는 일반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체육인과 일반인 간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김동규(1995)의 엘리트 스포티즘에 대한 한국민의 의식 및 태도 조사 결과 (2.09)에서 보다는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운동 선수의 학업 손실 방지를 위한 노력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31	2.12	2.26	2.14	2.02	2.25	2.37	2.22	2.53	2.38	2.10	2.23
SD	1.09	0.93	1.02	1.02	0.97	1.08	0.99	0.91	1.21	1.14	0.91	1.02
t or f	4.37		1.31		1.80				7.67			
P	0.0371		0.2532		0.1465				0.0005			

2)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횟수

표 4-2은 학생 운동선수의 대회참가 회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전체적 경향에서는 연3회 참가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서는 연2회 4회 1회 순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4-2. 연간 학생 선수의 대외 경기 참가횟수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연 1 회	24	4	19	9	5	13	5	5	3	8	17	28
	4.45	0.74	3.53	1.67	0.93	2.41	0.93	0.93	0.56	1.48	3.15	5.19
연 2 회	75	92	132	35	20	79	33	35	21	26	120	167
	13.91	17.07	24.49	6.49	3.71	14.66	6.12	6.49	3.90	4.82	22.26	30.98
연 3 회	111	77	130	58	32	113	22	21	25	61	102	188
	20.59	14.29	24.12	10.76	5.94	20.96	4.08	3.90	4.64	11.32	18.92	34.88
연 4 회	92	62	122	32	31	75	32	16	26	38	90	154
	17.07	11.50	22.63	5.94	5.75	13.91	5.94	2.97	4.82	7.05	16.70	28.57
기 타	2	0	1	1	1	0	1	0	0	1	1	2
	0.37	0.00	0.19	0.19	0.19	0.00	0.19	0.00	0.00	0.19	0.19	0.37
계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56.40	43.60	74.95	25.05	16.51	51.95	17.25	14.29	13.91	24.86	61.22	100.00
S D	0.96	0.84	0.90	0.90	0.95	0.85	1.00	0.89	0.89	0.89	0.91	0.91
t or f	0.26		0.33		2.40				2.17			
P	0.6114		0.5672		0.0669				0.1147			

이와 같은 경향은 여자 보다는 남자에게서, 지역별에서는 군지역 거주자에서, 연령별에서는 10대와 20대에서, 신분별에서는 비경기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여자, 시지역 거주자 30대 이상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는

연 2회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체육인중 경기인들은 연4회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3)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 제도

표 4-3은 학생 운동 선수들의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점에서 3.21점으로 "그저 그렇다"는 경향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다.

표4-3.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제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23	3.19	3.26	3.06	3.09	3.22	3.20	3.34	3.35	3.22	3.18	3.21
SD	1.16	1.05	1.14	1.14	1.12	1.08	1.18	1.14	1.20	1.06	1.11	1.13
t or f	0.13		3.39		0.69				0.73			
P	0.7138		0.0662		0.5598				0.4817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결과 연령별과 신분별에서 다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발견되고 있는데 연령별에서는 40대 이상이 3.34점으로 다른 연령층 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신분별에서는 경기인이 3.35점으로 비경기인과 일반인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정 결과에 의하면 각 요인별에서 평균치 차이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4) 장학(경제적) 혜택의 정도

표 4-4는 학생 운동 선수들의 장학(경제적) 혜택은 어느 정도 제공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서 학비 및 숙식제공이 전체 평균에서 37.11%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비 및 숙식, 스카우트비 제공 등이 28.9%, 학비 면제가 20.2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경기인과 비경기인"에 유의한 차이가 를 나타냈다. 이의 결과에서 경기인들의 경우 학비면제, 숙식제공, 스카웃비 제공등에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4 . 장학(경제적) 혜택의 정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무 혜택	17	5	13	9	7	8	3	4	1	7	14	22
	3.15	0.93	2.41	1.67	1.30	1.48	0.56	0.74	0.19	1.30	2.60	4.08
학비면제	66	43	82	27	12	62	25	10	14	33	62	109
	12.24	7.98	15.21	5.01	2.23	11.50	4.64	1.86	2.60	6.12	11.50	20.22
숙식제공	17	16	22	11	11	16	2	4	2	8	23	33
	3.15	2.97	4.08	2.04	2.04	2.97	0.37	0.74	0.37	1.48	4.27	6.12
학비면제 숙식제공	112	88	158	42	29	96	42	33	24	42	134	200
	20.78	16.33	29.31	7.79	5.38	17.81	7.79	6.12	4.45	7.79	24.86	37.11
학비숙식 스카웃비	76	80	114	42	24	85	21	26	31	34	91	156
	14.10	14.84	21.15	7.79	4.45	15.77	3.90	4.82	5.75	6.31	16.88	28.94
기 타	16	3	15	4	6	13	0	0	3	10	6	19
	2.97	0.56	2.78	0.74	1.11	2.41	0.00	0.00	0.56	1.86	1.11	3.53
계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56.40	43.60	74.95	25.05	16.51	51.95	17.25	14.29	13.91	24.86	61.22	100.00
S D	1.35	1.17	1.37	1.37	1.41	1.29	1.20	1.17	1.22	1.41	1.23	1.29
t o r f	2.95		1.49		1.07				2.31			
P	0.0865		0.2230		0.3607				0.0999			

학생 운동선수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학교에서 운동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특기생 제도 및 장학혜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좋은 제도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학(경제적) 혜택에 있어 학비 및 숙식 제공등에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다.

셋째, 제주도민의 경우 학생 선수들의 연간 대회 참가 횟수에 대하여는 3회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대표 선수 및 팀 관리

1) 대표 선수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

표 5-1은 제주도 대표 선수 및 팀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 출전하였을 때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을 조사한 내용으로 평점 범위 1~5점에서 3.01점으로 "그저 그렇다" 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에서 남자(2.97), 10대(2.89), 20대(2.98), 40대이상(2.95), 군 지역 거주자(2.90), 비경기인(2.98)들은 보통 수준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유의차는 "경기인과 비경기인", 일반인과 비경기인" 간에 발견되고 있으며, "연령별", "일반인과 경기인"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평점 평가 결과에서는 김동규(1995:405)의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한국 국민들이 대표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 정도(3.13)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5-1. 대표 선수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97	3.06	3.04	2.90	2.89	2.98	3.25	2.95	3.04	2.98	3.01	3.01
SD	1.02	1.05	1.09	1.09	1.12	1.05	1.00	0.86	0.99	1.07	1.03	
t or f	0.96		1.75		2.24				0.09			
P	0.3264		0.1863		0.0827				0.9119			

2) 우수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및 선수 교류

표 5-2는 우수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및 선수교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 점에서 3.85점으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의 평균치 유의차 검증 지역별,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P < .05$)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에서는 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체육인 중에는 경기인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비경기인과 군지역 거주자는 다소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5-2. 우수 엘리트 선수의 스카우트 및 선수 교류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76	3.87	3.86	3.64	3.78	3.82	3.83	3.79	4.00	3.60	3.85	3.81
SD	1.03	0.97	1.03	1.03	0.97	0.98	1.04	1.12	0.92	1.04	1.00	1.01
t or f	1.66		4.84		0.06				4.42			
P	0.1987		0.0282		0.9815				0.0124			

3)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집단 합숙 훈련

표 5-3은 대표 선수로 선발된 우수 선수들의 종목별 집단 합숙 훈련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점에서 3.54으로 "효율적 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5-3.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집단 합숙훈련 실시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57	3.51	3.58	3.44	3.36	3.52	3.66	3.73	3.79	3.32	3.58	3.54
SD	0.98	0.94	0.97	0.97	1.05	0.94	1.01	0.85	0.89	1.04	0.93	0.96
t or f	0.55		2.00		2.54				6.40			
P	0.4596		0.1580		0.0555				0.0018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나고 있는데, 체육인중 경기인이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4) 우수선수 포상 제도

표 5-4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에 대해 포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기준 1~5점에서 2.31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검정에서 역시 집단간에 평균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제주도민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외 대회 출전 선수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평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또한 집단간에 큰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표 5-4. 우수성적에 대한 포상제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29	2.33	2.28	2.39	2.29	2.39	2.15	2.23	2.21	2.31	2.33	2.31
SD	0.90	0.89	0.87	0.87	0.87	0.94	0.85	0.81	0.99	0.90	0.87	0.89
t or f	0.25		1.28		1.92				0.52			
P	0.6151		0.2591		0.1248				0.5936			

대표 선수 및 팀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회에 출전한 도 대표 선수 및 팀에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있어서는 보통 정도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군 지역 거주자, 남자, 30대를 제외한 연령층, 비경기인 등에서는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지역간 또는 팀간의 스카우트 및 교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표 선수로 선발된 우수 선수들의 집단 합숙 훈련 실시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 각종 경기대회

1) 제주도내 스포츠 경기대회

(1) 지역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

표 6-1은 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종목별 경기대회 및 종합경기대회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평점기준 1~5점에서 3.10점인 "보통"으로 나타났다.

표 6-1. 지역 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01	3.09	3.04	3.07	3.18	3.11	2.89	2.84	2.88	3.01	3.10	3.04
SD	0.92	0.90	0.91	0.91	0.78	0.88	1.03	0.99	0.93	0.85	0.93	0.91
t or f	0.92		0.09		3.28				1.95			
P	0.3367		0.7657		0.0207				0.1439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 유의차 검증결과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별에서는 10대와 20대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effè의 검정에서는 집단간에 평균치의 차이를 발견되지 않았다.

(2) 엘리트 선수 육성에의 기여

표 6-2는 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종목별 경기대회 및 종합경기대회가 엘리트 선수 육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범위 1~5점에서 2.92점으로 기여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결과 성별, 연령별,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0대들의 경우 보통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기여정도가 적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경기인보다 비경기인과 일반인이 다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effè의 검정에서는 집단간에 평균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6-2.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한 기여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2.88	2.97	2.91	2.96	3.07	2.98	2.80	2.69	2.80	2.99	2.92	2.92
SD	1.09	0.96	1.10	1.10	1.01	1.02	1.15	0.99	1.17	1.03	1.01	1.06
t or f	0.81		0.21		2.63				0.76			
P	0.3697		0.6488		0.0492				0.4674			

(3) 주최·주관의 선정 운영

표 6-3, 4, 5, 6은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경기대회의 주최, 주관 단체의 선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평점 범위 1~5점에서 스포츠 단체의 주최 주관운영에 대해서는 3.55점, 자치단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은 3.53점으로 "긍정"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가 주최하고 스포츠 단체가 주관하는 것에는 3.41점, 언론사가 주최 스포츠 단체가 주관하는 데에는 3.32점으로 "보통"이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이들 각 항목에 있어 집단간 Scheffè 사후 검증결과 각 집단간의 평균치에 있

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각종 대회 개최에 있어 대회 운영전반과 행·재정적 처리 등에 대한 책임과 경기운영 전담을 스포츠 단체가 전적으로 담당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포츠 단체가 경기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스포츠단체 주최 주관 운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53	3.57	3.57	3.47	3.36	3.49	3.68	3.81	3.59	3.33	3.62	3.55
SD	0.93	0.87	0.87	0.87	0.98	0.83	0.90	1.03	0.81	0.92	0.91	0.90
t or f	0.21		1.12		4.46				5.25			
P	0.6446		0.2908		0.0042				0.0055			

표 6-4. 일반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38	3.44	3.43	3.32	3.27	3.42	3.31	3.61	3.45	3.38	3.40	3.41
SD	0.89	0.93	0.81	0.81	1.00	0.83	0.98	0.99	0.92	0.96	0.89	0.91
t or f	0.64		1.54		2.32				0.16			
P	0.4238		0.2154		0.0742				0.8551			

표 6-5. 자치단체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52	3.55	3.60	3.35	3.47	3.53	3.57	3.57	3.61	3.46	3.55	3.53
SD	0.95	0.91	0.86	0.86	0.99	0.83	0.96	1.16	0.91	0.96	0.92	0.94
t or f	0.10		7.29		0.22				0.69			
P	0.7489		0.0072		0.8832				0.5021			

표 6-6. 언론사가 주최, 스포츠 단체 주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33	3.30	3.37	3.16	3.28	3.33	3.31	3.34	3.25	3.33	3.33	3.32
SD	1.00	0.94	0.97	0.97	1.17	0.85	1.03	1.08	0.97	0.94	0.99	0.99
t or f	0.10		4.55		0.06				0.19			
P	0.7516		0.0334		0.9811				0.8295			

(4) 경기 운영 방식

표 6-7,8,9,10은 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경기대회 경기운영 방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평점기준1~5점에서 지역간 대항 경기 또는 직장 대항 경기, 종목별 클럽대항경기, 학교대항 경기등에 대해서 모두 3.58점 긍정적인 경기 방식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교대항 경기를 가장 선호(3.73)하고 있고 다음이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3.72), 지역간 대항경기(3.62), 직장대항경기(3.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유의차 검증결과 지역간 대항경기에서는 지역별에서, 직장대항경기에서는 전체 요인별에서, 종목별 클럽대항경기에서는 성별과 신분별에서, 학교대항 경기에서는 지역별을 제외한 전 요인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P<.05)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지역간 대항 경기에 대해 군 지역 거주자가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직장간 경기에서는 남자와 군 지역 거주자 그리고 40대 이상, 비경기인들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에 대해서는 성별에서 남자, 신분별에서 비경기인이, 학교대항경기에 대해서는 성별에서 남자가, 신분별에서 경기인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학교 대항 경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별에서 남자는 학교대항 경기를, 여자는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를 좀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별에서 시지역거주자는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를 군지역거주자

는 지역대항 경기를 다소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10대와 20대는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 30대와 40대 이상은 학교대항 경기를 신분별에서 경기인은 학교대항 경기를, 비경기인은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 일반인은 종목별 클럽대항 경기와 학교대항 경기 똑같이 각각 높이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표 6-7. 지역간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6	3.60	3.58	3.78	3.65	3.63	3.62	3.62	3.73	3.62	3.62	3.63
SD	0.94	0.92	0.84	0.84	1.03	0.88	1.00	0.95	0.84	0.98	0.94	0.92
t or f	0.51		4.38		0.02				0.51			
P	0.4759		0.0369		0.9968				0.6030			

표 6-8. 직장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8	3.46	3.56	3.65	3.58	3.61	3.44	3.64	3.69	3.72	3.50	3.58
SD	0.88	0.81	0.87	0.87	0.96	0.83	0.84	0.84	0.82	0.92	0.83	0.86
t or f	8.66		1.17		1.07				3.70			
P	0.0034		0.2795		0.3605				0.0253			

표 6-9. 종목별 클럽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80	3.62	3.72	3.72	3.74	3.74	3.67	3.68	3.72	3.84	3.67	3.72
SD	0.91	0.86	0.92	0.92	0.96	0.89	0.88	0.83	0.86	0.94	0.88	0.90
t or f	5.12		0.00		0.25				1.81			
P	0.0241		0.9840		0.8596				0.1651			

표 6-10. 학교 대항경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82	3.61	3.71	3.78	3.73	3.72	3.70	3.79	3.96	3.74	3.67	3.73
SD	0.93	0.92	0.89	0.89	1.11	0.92	0.89	0.83	0.85	1.00	0.92	0.92
t or f	6.33		0.53		0.16				2.99			
P	0.0122		0.4683		0.9920				0.0511			

2) 전국규모대회 유치

표 6-11은 전국규모대회 유치 개최가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평점기준 1~5점에서 3.43점으로 "보통"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성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신분별에서 경기인의 경우 역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경기인과 일반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표 6-11. 전국대회 유치개최가 스포츠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0	3.21	3.44	3.42	3.19	3.47	3.47	3.52	3.76	3.44	3.35	3.43
SD	0.99	1.04	1.05	1.05	1.11	1.00	1.10	0.91	0.90	1.02	1.05	1.02
T or f	19.60		0.02		2.01				4.81			
P	0.0001		0.8958		0.1118				0.0085			

3) 전국규모대회 참가

표 6-12, 13, 14, 15는 전국규모대회에 참가와 관련된 참가 기회, 선수단 규모, 경기력 향상, 참가종목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내용 결과 평점 기준 1~5점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4.33점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 기회의 확대(4.21) 참가종목의 다양화(4.07)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선수단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3.80점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6-12. 대회 참가 기회 확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31	4.16	4.26	4.19	4.27	4.22	4.32	4.19	4.39	4.25	4.21	4.24
SD	0.71	0.72	0.77	0.77	0.79	0.75	0.63	0.61	0.57	0.73	0.74	0.71
t or f	5.39		1.17		0.62				1.88			
P	0.0206		0.2797		0.6018				0.1539			

표 6-13. 참가 선수단 규모 확대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79	3.81	3.81	3.76	3.84	3.78	3.85	3.79	4.05	3.80	3.75	3.80
SD	0.92	0.80	0.91	0.91	0.85	0.88	0.85	0.89	0.91	0.85	0.86	0.88
t or f	0.07		0.35		0.25				3.86			
P	0.7917		0.5531		0.8621				0.0216			

표 6-14.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34	4.31	4.35	4.27	4.38	4.35	4.25	4.30	4.40	4.31	4.32	4.33
SD	0.74	0.69	0.72	0.72	0.76	0.71	0.80	0.56	0.68	0.73	0.72	0.71
t or f	0.19		1.10		0.69				0.42			
P	0.6629		0.2941		0.5601				0.6598			

표 6-15. 참가 종목의 다양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2	4.02	4.10	4.01	3.99	4.14	4.14	3.88	4.21	4.01	4.07	4.08
SD	0.86	0.83	0.90	0.90	0.97	0.82	0.77	0.83	0.76	0.83	0.87	0.85
t or f	1.87		1.00		2.37				1.34			
P	0.1717		0.3170		0.0700				0.2624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대회 참가 규모의 확대에서는 성별에서, 선수단 규모의 확대에 있어서는 신분별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으며, 경기력 향상과 참가종목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각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간에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일반인과 경기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3) 각종 대회 운영시 우선적으로 시정 고려 되어야 할 사항

표6-16은 각종 대회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시정 고려 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로 선수 이외의 일반 참여의 무관심, 과잉경쟁, 관 주도형 운영, 재정의 과다지출, 개최시기, 종목운영, 인력동원, 규모의 비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인들의 경우는 일반 참여의 무관심에 대하여 성별 지역별, 연령별, 신분별에 관계 없이 각 요인별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시정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일반 참여의 무관심 다음으로 과잉경쟁을 지적하고 있지만 경기인, 30대의 연령층, 군지역 거주자로 구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인의 경우 인력동원의 문제를 비경기인의 경우 종목 운영의 문제를, 30대의 경우 관주도의 대회 운영을, 군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개최 시기의 문제 등을 무관심 다음으로 시정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6-16 . 각종 대회 운영시 우선 시정 고려 되어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규모비대	43	23	48	18	9	41	7	9	11	19	36	66
	3.99	2.13	4.45	1.67	0.83	3.80	0.65	0.83	1.02	1.76	3.34	6.12
관주도	64	46	81	29	13	54	28	15	12	26	72	110
	5.94	4.27	7.51	2.69	1.21	5.01	2.60	1.39	1.11	2.41	6.68	10.20
재정과다	54	53	72	35	24	49	18	16	9	26	72	107
	5.01	4.92	6.68	3.25	2.23	4.55	1.67	1.48	0.83	2.41	6.68	9.93
개최시기	60	41	75	26	18	57	13	13	15	34	52	101
	5.57	3.80	6.96	2.41	1.67	5.29	1.21	1.21	1.39	3.15	4.82	9.37
과잉경쟁	66	54	93	27	17	60	21	21	17	28	75	120
	6.12	5.01	8.63	2.50	1.58	5.57	1.95	1.95	1.58	2.60	6.96	11.13
인력동원	49	40	75	14	4	30	19	26	20	11	58	89
	4.55	3.71	6.96	1.30	0.37	2.78	1.76	2.41	1.86	1.02	5.38	8.26
종목운영	54	43	76	21	21	55	13	7	14	32	51	97
	5.01	3.99	7.05	1.95	1.95	5.10	1.21	0.65	1.30	2.97	4.73	9.00
참가방법	40	37	52	25	14	45	9	9	8	23	46	77
	3.71	3.43	4.82	2.32	1.30	4.17	0.83	0.83	0.74	2.13	4.27	7.14
무관심	154	114	213	55	48	143	43	34	37	59	172	268
	14.29	10.58	19.76	5.10	4.45	13.27	3.99	3.15	3.43	5.47	15.96	24.86
기타	24	19	23	20	10	26	15	4	7	10	26	43
	2.23	1.76	2.13	1.86	0.93	2.41	1.39	0.37	0.65	0.93	2.41	3.99
계	608	470	808	270	178	560	186	154	150	268	660	1,078
	56.40	43.60	74.95	25.05	16.51	51.95	17.25	14.29	13.91	24.86	61.22	100.00
S D	2.50	2.39	2.70	2.70	2.57	2.56	2.16	2.26	2.41	2.34	2.51	2.46
i o r f	0.16		6.65		0.29				0.68			
P	0.7556		0.1136		0.8321				0.5893			

7.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전환

표 7-1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엘리트 육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05점으로 "필요성"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정에서는 각 요인별에서 유의한 차이 (P>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전환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07	4.03	4.06	4.03	3.99	4.03	4.25	4.00	4.09	4.03	4.06	4.05
SD	0.78	0.74	0.77	0.77	0.90	0.72	0.76	0.74	0.70	0.88	0.73	0.77
t or f	0.33		0.21		2.45				0.17			
P	0.5643		0.6481		0.0628				0.8454			

2) 지도자의 자질 개선 및 효율적 관리

표 7-2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지도자의 자질 개선과 관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3점으로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 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7-2. 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4	4.12	4.15	4.08	4.02	4.09	4.29	4.21	4.28	3.86	4.21	4.13
SD	0.77	0.74	0.69	0.69	0.80	0.77	0.72	0.66	0.73	0.89	0.67	0.74
t or f	0.12		0.80		2.53				12.53			
P	0.7338		0.3715		0.0567				0.0001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의 사후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비경기인과 일반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비경기인의 경우 일반인 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

표 7-3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엘리트 선수의 전

인적 자질 향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2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연령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è 테스트 결과 "비경기인과 일반인", "경기인과 비경기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연령별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신분별에서는 경기인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7-3.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0	4.15	4.13	4.11	3.88	4.13	4.39	4.06	4.29	3.89	4.18	4.12
SD	0.79	0.76	0.82	0.82	0.93	0.75	0.66	0.71	0.69	0.87	0.73	0.78
t or f	0.58		0.05		6.95				9.14			
P	0.4483		0.8199		0.0001				0.0001			

4)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표 7-4는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을 위한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3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4. 생활 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13	4.14	4.15	4.10	4.01	4.16	4.24	4.09	3.99	4.13	4.18	4.13
SD	0.80	0.82	0.89	0.89	0.98	0.79	0.79	0.67	0.80	0.87	0.79	0.83
t or f	0.02		0.34		1.34				1.66			
P	0.8895		0.5584		0.2599				0.1902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연령별,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스포츠의 과학화

표 7-5는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스포츠 과학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7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지역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시 지역에 거주 하는 도민이 군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게 평가 하고 있다.

표 7-5. 스포츠의 과학화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25	4.06	4.21	4.04	4.03	4.15	4.32	4.21	4.27	4.18	4.15	4.17
SD	0.84	0.88	0.90	0.90	1.03	0.83	0.85	0.78	0.79	0.88	0.87	0.87
t or f	6.46		3.88		1.80				0.61			
P	0.0113		0.0494		0.1458				0.5432			

6) 스카우트와 관련된 금전 보상 및 장학제도

표 7-6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스카우트와 관련된 금전 보상 및 장학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70점으로 "필요하다" 부문에서는 낮게 평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P < .05$)가 나타나고 있는데 10대와 30대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7-6. 금전보상 및 장학제도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69	3.72	3.72	3.67	3.54	3.78	3.54	3.83	3.87	3.70	3.67	3.70
SD	0.99	0.88	0.94	0.94	0.97	0.86	1.08	1.01	0.93	0.88	0.97	0.95
t or f	0.13		0.33		3.00				1.29			
P	0.7210		0.5683		0.0302				0.2752			

7)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

표 7-7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80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지역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7.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85	3.74	3.80	3.79	3.78	3.84	3.84	3.62	3.92	3.82	3.76	3.80
SD	0.85	0.84	0.86	0.86	0.91	0.83	0.88	0.76	0.78	0.88	0.84	0.84
t or f	2.37		0.01		1.46				1.11			
P	0.1245		0.9109		0.2239				0.3309			

8) 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

표 7-8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중앙 중심 행사의 지방 분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3.92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나타나고 있다.

표 7-8. 중앙행사의 지방분산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91	3.93	3.93	3.90	3.74	3.92	4.04	3.97	4.07	3.72	2.04	3.92
SD	0.98	0.93	1.02	1.02	1.11	0.98	0.78	0.84	0.79	1.07	0.93	0.95
t or f	0.08		0.10		1.64				4.10			
P	0.7724		0.7567		0.1794				0.0170			

Scheffè 테스트 결과 "비경기인과 일반인", "경기인과 비경기인"간에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은 체육인에 비하여 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체육인들의 경우는 다소 일반인 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기관장 ·경제인 중심의 체육 행정 책임자 선정

표 7-9는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기관장 ·경제인 중심의 체육 행정 책임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의 범위에서 3.48점으로 "모르겠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기관장, 경제인 중심의 체육행정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3.46	3.58	3.50	3.54	3.54	3.52	3.48	3.49	3.56	3.56	3.48	3.51
SD	1.01	0.99	1.12	1.12	0.99	0.98	1.02	1.10	0.92	0.94	1.05	1.02
t or f	1.97		0.13		0.06				0.36			
P	0.1606		0.7203		0.9797				0.7009			

10) 매스컴의 협조

표 7-10은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매스컴의 협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으로서 평점 1~5점의 범위에서 4.15점으로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인별 집단간 평균치의 유의차 검증 결과 신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의 시행 발전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각 나열 항목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매스컴의 협조(4.19)가 필요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의 과학화(4.17), 지

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4.13)와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4.13),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4.12),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4.05), 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3.92),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의 개편(3.8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과 중앙 행사의 지방 분산에 대해서 경기인들이 비경기인이나 일반인 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10. 매스컴의 협조

구분 내용	성별		지역별		연령별				체육인		일반인	계
	남	여	시지역	군지역	10대	20대	30대	40이상	경기인	비경기인		
N	304	235	404	135	89	280	93	77	75	134	330	539
M	4.25	4.12	4.22	4.10	4.25	4.18	4.19	4.17	4.31	4.22	4.15	4.19
SD	0.82	0.78	0.86	0.86	0.86	0.78	0.90	0.73	0.73	0.75	0.84	0.81
t or f	3.13		2.22		0.17				1.23			
P	0.0775		0.1365		0.9139				0.2942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관계 및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 및 선수와 팀의 관리, 각종 경기대회 운영,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대학 재학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제주도민 539명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엘리트 스포츠가 학교 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향심 고양과 지역 홍보 등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을 뿐 도민간의 유대강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 경쟁력 고양 등 사회 관계에 미친 영향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스포츠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80년대 이후 긍정적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엘리트 스포츠 행정 조직 책임자의 선임,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경기인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기단체, 지역 체육회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행정체계 및 정책과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학생 운동 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대표 선수 및 팀에 대하여 경기인 외의 일반 도민의 경우 기대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넷째,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지역간 팀간의 교류 그리고 집단 합숙 훈련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수 선수에 대한 포상 제도는 개선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도내에서 열리고 있는 종목별 경기대회 및 종합경기대회는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회 운영시 선수 이외의 일반 참여의 무관심, 과잉경쟁, 관주도형 운영, 재정의 과다지출, 개최시기, 종목운영, 인력동원, 규모의 비대화 등은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대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제 언

이와 같은 결론에 의하여 제주도내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엘리트 스포츠가 학교체육 및 생활 체육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 체육인 양성을 통한 스포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가 필요 하다.

둘째, 선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수의 학업 손실을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엘리트 선수들의 전인적 자질 향상 위한 노력이 기울여 져야 한다. 아울러 대표 선수 및 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를 갖을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우선 요구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회 참가 기회의 확대, 참가종목의 다양화 등이 검토와 우수 선수들 대한 포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도내에서 개최 되는 각종 경기대회와 전국규모대회 유치 개최가 지역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의 시행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의 과학화, 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 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등이 요청 되고 있으며, 매스컴 또는 매스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엘리트 스포츠 활동의 순기능적 요소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할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광현(1988), 「스포츠와 정치」, 도서출판, 푸른나무.
- 권운택(1993), "올림픽 이념의 역사적 이해", 한국올림픽아카데미 제5기정규 과정 보고서.
- 김동규(1993), "현대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체육, 스포츠의 본질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95), "엘리트 스포티즘에 대한 한국국민의 의식 및 태도 조사 연구", 스포츠과학연구논총, 문화체육부.
- 김범식(1988), "스포츠를 통한 정치 사회화가 국민정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희(1992), "엘리트 스포티즘에 대한 휴머니즘적 비판",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룡 ·장세창 ·송승건(1993),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논문집 제20집.
- 김승곤 ·이세형 ·양명환(1997), "교육지도자들이 자각하는 스포츠 가치 지 향", 체육과학연구제3집, 제주대학교체육과학연구소.
- 김현태(1996), "엘리트 체육정책에 따른 체육인의 의식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용연(1989), "한국 학교 체육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성휴 ·한왕택(1993), 「현대스포츠론」, 형설출판사.
- 문익수(1993), "스포츠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의 Fair Play", 한국올림픽 아카데미 제5기 정규 과정 보고서.
- 양조훈(1984), 「제주체육사」.
- 오상남(1993),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체육교사의 의식 및 태도조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오주훈(1993), "엘리트 스포츠 경기자의 스포츠 사회화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천(1989), "서울올림픽과 사회, 문화 발전, 서울 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
- 이광섭(1993),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정책의 변화를 통해본 진흥방향",
한국체육대학교 제4회 학술대회.
- 이상철(1990), 「스포츠 사회학 개론」, 형설출판사.
- 이진수(1992), 「스포츠의 철학적 모색」, 교학연구사.
- 전중배(1990), "엘리트 이론과 민주주의",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동규(1993), "학교체육과 사회 체육의 관계를 통해본 미래의 엘리트 체육
진흥 방향", 한국체육대학교 제4회 학술대회.
- 정홍익(1988), 「현대 자본주의와 스포츠」, 나남 출판사.
- 진성태(1998),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체육과학연구소
제3회 세미나.
- 제주도체육사편찬위원회(1991), 「제주도체육사」, 제주도체육회.
- 체육부(1992), "올림픽 이후의 체육 정책에 관한 공청회 보고서"
- Bouet, M.(1966), "Some meaning of American sport", Chicago.
- Brohm, J.M. (1978), "sport: a prison of measured-time", Ink Links Ltd.
- Brockmann, D.(1969), "sport as an integrating tator in the countryside", In IRSS, 4
- Coakley, J.J.(1980), "Play, Game and sport: Developmental implications for young
people, Journal of sport behavior.
- Hill, P. et al (1974), "The inevitable metathesis of the retiring athlete",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9(No.3).
- Guttman, A. (1978), From ritual to record: The nature of modern spor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7).
- Scott, J.(1969), "Athletics for athletes", Barkeley.
- Scott, J. (1972), "sport: Scott's radical ethic", Intellectual digest 11(July).
- Waller, P.(1932), "The sociology of Teaching", New York: Wiley.

[Abstract]

A Research on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about elite Sport

Jeong Chan Sik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ong-G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sirable ways of elite sport through the research of the consciousness of elite sport in Cheju-do
To achieve the above, 539 Cheju people were asked 56 questions about elite sport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 this paper, T-test, ANOVA and χ^2 (chi-squares) test methods through the use SAS were used t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concrete problems drawn from such a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t is certain that most of the Cheju people trend to have a negative reply in the role of elite sport about promotions of sports itself or social relation. Most Cheju islanders think that elite sports seldom influence the social union, and the sound atmosphere of our nation.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elite sport must be connected with the School sports and sport for all.

2.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about influence of sports activity is changing toward affirmative attitude after eighty-decade years. This result seems to be desirable to develop elite spor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do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3. In a question of a spor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athletes, most of cheju islanders trend to have a negative attitude about the chief of government or businessmen centered sports administrative activities. only physical directors sympathize with the leading role of an athletic organization. And both of them have no interest in relation to between the system of an local sport council and financial support from an local self-governing.
4. From the viewpoint of caring for student athletes, they don't think about many schools make an effort to cut down on a loss of student athletes' schoolwork. and they also take preferential treatments and a scholarship for entering upon schooling as a matter of course. Especially they have a high opinion of school costs and offering lodging and boarding in the benefits of student athletes' schoolwork.
5. Cheju islanders have not answer affirmative answer toward the local representative athletes or teams, but they agree to the necessity of the exchange between the elites from the different area and camp training. And they also know that the system of prize for elite athletes should be improved.
6. It is shown that an event or all-round games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local athletics, and rearing for elite athletes, either. In relation to the managing a tournament, they note that the point to be considered are general indifference, an excessive competition, government-centered management, an excessive expenses in finance, the time fixed for an athletic meeting, managing an event, manpower mobilization, and a very extensive scale.
7. As regards the influence of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inducing or joining a nation athletic meet, they emphasize the progress of the athletes' ability.

After all, our cheju islanders think that the cooperation of mass communication must be needed to develop elite sports. And they question the problem of connection between the scientific program for elite sport and sports for all. Lastly they call for the conversion of understanding elite sport, the local dispersion of central sports ev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port government setups for elite.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지는 엘리트 스포츠육성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시면 본인의 연구에는 물론이고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의 기초 자료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기명 기술로써 응답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성심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어의 정의

엘리트 스포츠 : 전문적인 운동 선수 및 팀간에 거행되는 경기

1998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정 찬 식 배상

배 경 질 문

해당사항에 " V "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② 여

2. 거주지역

-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③북제주군 -----④남제주군

3. 연령은 현재 만 _____ 세

4. 직업 및 신분(현재)

- ① 운동경기 관련 체육인(운동선수, 코치, 감독,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교사, 체육단체 임원(임원 경력소유, 단체종사원 포함)
----- ② 비 경기 관련 체육인 (운동선수가 아닌 체육과 학생, 선수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스포츠동호인회 회원 등)
----- ③ 비체육인(일반인: 운동경기과 무관한 일반 대학생 및 일반 사회인)

5. 체육인중의 신분 (체육인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지도자(코치, 감독, 체육교사, 체육단체 임원(임원 경력소유, 단체종사원 포함))
----- ② 대학, 대학원생, 사회인(운동선수, 체육과 학생, 직업을 가지지 않은 대학원생,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스포츠 동호인회 회원)

- ④ 좋은 점이 많은 편이다.
- ⑤ 매우 잘된 행정체계이다.

4. 현재 제주도내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저조한 편이다.
- ② 저조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우수한 편이다.
- ⑤ 매우 우수한 편이다.

5. 종목별 경기단체 및 지역 체육회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행정 체계 및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②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바람직하다.
- ⑤ 매우 바람직하다.

6. 지역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자치 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②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바람직하다.
- ⑤ 매우 바람직하다.

학생 선수의 관리

7. 각급 학교는 운동 선수들의 학업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력이 거의 없다.
- ②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 ⑤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8. 학생 선수들의 연 대외 경기 참가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 1회----- ② 연 2회----- ③ 연 3회----- ④ 연 4회 -----

9. 우수 운동 선수의 상급학교 특기생 진학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된 제도이다.
- ② 잘못된 점이 많은 제도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좋은 점이 많다.
- ⑤ 매우 잘된 제도이다.

10. 우수 운동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경제적) 혜택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혜택이 전혀 없어야 한다.
- ② 학비 면제 .
- ③ 숙식 제공.
- ④ 학비면제, 숙식제공.
- ⑤ 학비면제, 숙식제공, 스카우트비 제공.
- ⑥ 기 타

대표선수 및 팀관리

11. 제주도 대표 선수 및 팀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 출전했을 경우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심과 기대감이 전혀 없다.
- ② 낮은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높은 편이다.
- ⑤ 매우 높은 편이다.

12. 우수 엘리트 선수의 지역간 또는 팀간의 스카우트 및 교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역기능적 효과가 따른다.
- ② 불필요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필요성을 인정한다.
- ⑤ 경기력 향상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3. 대표선수로 선발된 우수한 운동선수들의 종목별 집단 합숙훈련 실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 ② 효율적이지 못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효율적인 편이다.
- ⑤ 매우 효율적이다.

14.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한 포상제도(매월보상, 일시불 보상, 장학금 지급 등)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다.
- ②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없는 편이다.
- ⑤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전혀 없다.

각종 경기대회

* 제주도내 스포츠 경기 대회

15. 제주도내에서 열리는 종목별 경기대회 및 종합경기대회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항 목	매우적은기여	적은기여	보 통	많은기여	매우많은기여
① 지역 체육 활성화					
② 엘리트 선수 육성					

16.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에 있어 아래와 같은 대회 및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최 · 주관의 선정 운영>		1	2	3	4	5
항 목		매우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① 스포츠 단체의 주최 주관 운영						
② 일반 사회 단체 또는 기업체가 주최하고 스포츠 단체가 주관						
③ 자치단체 주최 하고 스포츠 단체가 주관 운영						
④ 언론사가 주최하고 스포츠 단체가 주관 운영						

(용어 정의 : 주최 - 대회 운영 전반의 행정적 재정적 처리하고 책임을 짐
 주관 - 경기운영 전반 전담 처리)

<경기 운영 방식>

	1	2	3	4	5
항 목	매우부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지역간 대항 경기 (시·군, 읍면동 대항)					
② 직장 대항경기					
③ 종목별 클럽 대항경기					
④ 학교대항 경기					

*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 및 참가

17. 전국규모대회의 제주도 유치 개최가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높다.
- ⑤ 매우 높다.

18. 제주도 지역의 경우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 목	매우불필요	불필요함	모르겠다.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대회 참가 기회의 확대					
② 참가 선수단 규모 확대					
③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④ 참가 종목의 다양화					

19. 각종 대회 운영에서 우선적으로 시정,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항목에 "v"표 해주십시오)

- ① 규모의 비대화
- ② 관 주도형 운영
- ③ 재정의 과다 지출
- ④ 개최시기(업무 및 수업 결손등)
- ⑤ 과잉경쟁
- ⑥ 식전, 식후 공개 행사의 인력 동원
- ⑦ 경기 종목 운영

- ⑧대회 참가 방법(참가자격 등)
- ⑨선수 이외의 일반 참여의 무관심

종합 평가 및 개선 방향

20. 바람직한 엘리트 스포츠 시행 발전과 개선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 3 4 5

항 목	매우불필요	불필요함	모르겠다.	필요함	매우 불필요함
①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					
②지도자의 자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					
③엘리트 선수의 전인적 자질 향상					
④생활체육과의 효율적 연계					
⑤스포츠의 과학화					
⑥스카웃과 관련된 금전보상 및 장학제도					
⑦엘리트 스포츠 행적 조직의 개편					
⑧중앙(서울) 행사의 지방 분산					
⑨기관장,경제인 중심의 체육 행정 책임자 선임					
⑩매스컴의 협조					

감사합니다.